

OECD DAC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총괄부 정책연구팀

OECD DAC 동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논의되는 최신 개발협력 동향과 DAC 주요 회원국의 개발원조정책 동향을 소개하며, 매월 1회 경제총괄부 정책연구팀에서 작성 및 배포합니다.

I. Development Issue

1. 반기문 UN 사무총장 OECD 연설 주요 내용
2. 2015 글로벌개발포럼(Global Forum on Development) 주요 내용

II. DAC 회원국 동향

1. 캐나다 정부, 개발금융기관(DFI) 설립계획 발표
2. 독일 KfW 개발은행,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III. OECD DAC 7월 일정



I. Development Issue

1. 반기문 UN 사무총장 OECD 연설 주요 내용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4.28일 OECD에서 개최된 UN 정상회의에서 올해가 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올해 예정된 개발협력 회의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OECD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내용의 연설 발표

가. 주요 내용

(1) 서론

- ☐ 2015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해이며 7월 개발재원총회, 9월 Post-2015 정상회의, 12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이하 ‘COP 21’)를 통해 Post-2015 개발 의제를 실행 단계로 전환시켜야 함
- ☐ OECD는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추구,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에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이 요구됨

(2) Post-2015 개발의제와 재원조달

- ☐ 2014년 12월 발간된 Post-2015 개발의제 통합보고서*에서는 Post-2015 개발의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6가지 요소로서 존엄성(Dignity), 인류(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정의(Justi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언급

*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 UN 회원국은 Post-2015 개발의제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제발전, 사회개발, 환경 지속가능성, 평화와 안보를 표방하는 Post-2015 개발목표는 범지구적인 목표로 자리잡게 될 것임
-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이 제안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하 SDG) 달성을 위해서는 재원 동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범세계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3)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역할

- 오는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될 제3차 개발재원총회는 전세계 민간재원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실현하는 데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임
- 본 총회를 통해 다음의 3가지 결과를 도출해야 함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탄탄하고(cohesive) 총체적인(holistic) 재원조달 프레임워크(financing framework) 구축
 - 인프라, 농업, 사회적 니즈, 중소기업(SME) 분야에서의 구체적 성과 달성
 - 목표 추진 과정 중 낙오 국가 방지를 위한 견고한 후속 조치 마련
- 현재 UN 회원국들은 “아디스아바바 협정(Addis Ababa Accord)”의 문안협상 과정에 있으며, 협정에서는 다음의 6가지 핵심 내용이 강조됨
 - ① 공공, 민간, 국내, 국외를 망라한 개발재원의 범위 및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금융 및 기술적 수단
 - ② 국내재원 동원과 불법 자금흐름 차단
 - 국내역량강화와 국제조세협력(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포함

③ ODA는 여전히 중요한 자원이며, 특히 최빈국과 도서지역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 최근 OECD DAC 회원국이 최빈국에 대한 원조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합의에 대해선 환영
- 그러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 시행 일정을 포함한 ODA 공약을 재공표함으로써 국제개발의제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함

④ 새로운 의제 달성을 위한 개발은행(development banks)의 중요한 역할

- 최빈국 졸업으로 인해 다양한 양허성 자원(concessional finance)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한 하위중소득국(LMIC :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의 니즈 충족
- 인프라, 농업, SME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자원 마련

⑤ 민간투자의 중요성

-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SDG 달성에 기여하는 주요 동인이며,
- OECD와 G20가 수립한 “기관 투자자의 장기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고위급 원칙”* 마련을 환영함

* High-level Principles of Long-term Investment Financing by Institutional Investors

⑥ 국제무역, 채무건전성, 구조적 이슈, 기술 및 역량 구축의 중요성

- 전세계 주요 국제기구 정상이 개발재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바, 각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회의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함

(4) 결론

- 최근 몇 달 동안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탄소량 감축 및 회복력(resilience)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 이처럼 개발재원총회에서도 기후변화 부문과 동일한 수준의 공약과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두의 노력을 촉구함

2. 2015 글로벌개발포럼(Global Forum on Development) 주요 내용

지난 4월 OECD는 “Post-2015 시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발재원(Post-2015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OECD 회원국, 개도국, 다자기관 등의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여 개발포럼을 개최

가. 배경

- 올해 글로벌개발포럼은 OECD의 3개년 프로젝트인 “Preparing for Post-2015”의 마지막 포럼으로 진행되었으며,
- 총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된 본 포럼은, 오는 7월 개최예정인 UN 제3차 개발재원총회를 앞두고, OECD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향후 SDG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나. 주요 논의 내용

(1) 개발재원 마련의 필요성과 도전

(Needs and Challenges in Financing for Development)

- 새로운 SDG는 기존의 MDG 보다 더 광범위한 개발이슈를 다루고 있는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ODA는 여전히 중요한 재원이지만 기타 재원 역시 현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개도국의 원조 의존도를 감축하면서 원조의 촉매적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함
 -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기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민간부문이 개발재원 마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인도주의 단체 역시 위협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이 참여를 꺼려하는 부문에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국내재원 동원의 잠재력 강화와 관련, 국제조세회피문제(international tax avoidance)에 대처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향후 이주자의 송금이 SDG 달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현재 OECD에서는 OECD/G20 BEPS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조세규정 개혁과 국경없는 조세 감시단(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이니셔티브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개도국의 조세 징수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의 약자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방지를 목적으로 OECD와 G20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 ** 개도국에 조세 감사 및 관리(tax audit and administration) 관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OECD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식 출범 예정
- 송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투명성 강화를 통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감축, 송금 수취자의 금융문해능력(financial literacy)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2) 새로운 주체와 방법(Possible Solutions: New Actors, New Tools)

- 민간부문의 참여는 SDG 달성에 매우 중요하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불확실성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수단을 동원하여 더 많은 개발재원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ODA를 축대로 활용하여 민간부문 자본을 동원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러한 수단이 효과적으로 동원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기업 부문 간의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탄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 World Bank Group과 같은 국제금융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들이 개발재원 동원의 여러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사전목표(pre-objectives)들을 수립해야 함
 - 투자 프레임워크 개선 및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민간투자를 증진시키는 OECD의 노력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또한 민간 부문에 공공 자금을 투입할 시 원활한 조달시스템(good procurement system)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한편, 본 세션에서는 개발을 위한 다양한 민간재원 사례가 소개됨
 - (KfW) 차등위험조정분담률을 적용한 시범 SF(Structured Finance) 운용 및 인프라 부문으로부터의 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투자자에 환입
 - (Oxfam) 탄소세 부과를 통한 조세수입 증대
 - (MIGA^{*}) 최빈국 및 취약국에의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보증제도 및 공공과 민간금융 간 연계(blending financial support)
-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케냐) 부족한 ODA 재원 보충을 위한 국채 및 인프라채권 발행
 - (UBS) 개발성과연계 투자(impact investment)

- (AFD)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적합한 혼합비율 설정 및 공공 재원 동원을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3) 효과적인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

(Designing a Roadmap to Advance Effec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 ODA는 투자위험감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잠재력을 지니며, OECD는 투자정책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를 통해 원조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를 지원
- 또한 현재 OECD는 개도국으로의 재원유입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개발재원 측정체계를 마련 중
- 재원마련 자체뿐만 아니라 원조 전략 수립 또한 중요하며, 특히 경제성장에 따라 원조적격대상에서 졸업하여 재원 접근성이 감축될 위험이 있는 중소득국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이 필수적임
- 한편 OECD는 SDG 달성을 위해 다음 4가지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강조
 - 최빈국에 대한 원조흐름 감소 추세 방지 및 원조를 축대로 다양한 형태의 재원 및 투자 유도
 - 민간부문 및 투자자의 개발참여를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
 - 조세수입 측정을 비롯한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
 - 개발재원 관련 아젠다 및 SDG 목표 달성 관련 논의 주도
- 현재 3차 개발재원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양질의 원조-투자-조세(Aid-Investment-Tax)를 더욱 많이 동원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II. DAC 회원국 동향

1. 캐나다,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FI)* 설립계획 발표

* 개도국에 민간부문 개발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공적금융기관

□ 캐나다는 2015년 예산계획을 통해 개발금융기관(DFI)을 EDC(Export Development Canada)* 산하로 설립하겠다고 발표

* 1944년 설립된 캐나다의 수출신용기관

□ DFI 관련 조항은 2015년 예산계획 4.2장 "Strong Communities"에 언급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간부문 투자는 개발재원을 보충하고 의미있는 개발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이나 민간기업은 높은 투자 위험으로 인해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올해 경제계획(Economic Action Plan)을 통해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발표하고, DFI 설립을 통해 이미 DFI를 운영 중인 타 G7 국가들의 노력에 동참키로 함

G7 회원국의 DFI 현황

국가	DFI
프랑스	Proparco
미국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영국	CDC (Commonwealth Development Cooperation)
독일	DEG (Deutsch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일본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탈리아	SIMEST (Societa Italiana per le Imprese all Estero)

- 향후 5년간 3천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 캐나다의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민간부문의 개도국 투자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빈곤감축 노력을 강화
- 또한 DFI 설립을 통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개도국의 부족한 개발재원을 보충함으로써 개발원조목표의 달성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캐나다는 현재 G7 국가 중 유일한 DFI 미보유 국가이며, 2013년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을 외교무역부에 통합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원조 정책을 개혁해 나가고 있음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캐나다 DFI 제안서(2014) 주요 내용>

1) 캐나다 DFI의 필요성

- 빈곤감축을 위한 효과적 수단

(A better tool for poverty reduction)

- 지난 20년간 개도국에서 창출된 90퍼센트 이상의 일자리가 민간주도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2012년엔 개도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중이 ODA에 비해 60퍼센트 앞서는 등, 개발에서의 민간부문의 중요성 증대
- DFI는 기술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동반하여 민간 기업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상업은행, 투자자, NGO의 개발 참여를 위한 촉매의 역할을 수행
- 주로 국채율(sovareign rate)로 돈을 빌려 자산 포트폴리오에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운용하며 실제로 여타 G7 국가들은 DFI를 통해 순수익을 창출해온 바 있음
- 또한, 캐나다는 현재 세계은행의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과 같은 다자 DFI를 지원하나 G7 국가 중 유일하게 자국 내 DFI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캐나다 ODA의 80퍼센트가 해외 또는 다자원조기관으로 투입되고 있어 자국의 영향력을 표출하기 어려운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DFI 설립 필요

☐ 캐나다 기업의 신흥시장진출 지원

(Supporting Canadian business in high-growth markets)

- 현재 캐나다 FDI의 단 1.5퍼센트만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도국에 투입되는 상황이며, 이는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임
- EDC에서 캐나다 기업의 해외투자지원을 위해 제한적으로 금융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장이자율 (market rate)을 준수해야하고, 주목적이 투자 또는 경제개발이 아닌 수출 진흥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현재 캐나다 기업들은 에너지, 광업, IT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캐나다 정부는 장기간투자를 위한 연기금 및 보험기금 운용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DFI를 통해 기업과 정부 간의 윈-윈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2) 캐나다 DFI의 바람직한 운용방식

☐ 상품과 서비스(Products and services)

- 시장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개도국 내 민간투자를 지원하며, 이는 EDC와 IFC보다 더 유리한 조건조건으로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
-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분투자, 차관, 보험, 보증, 메자닌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며,
- 사업당 최소 수백만달러를 투자할 역량을 구축하고, 특히 인프라부문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력


☐ 조직 운용(Organizational features)

-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개발성과를 제고
- DFI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대규모 거래와 장기 지원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와 다양화된 성격을 갖추어야 하며, 캐나다 정부의 신용(credit)을 기반으로, 창출된 수익을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할 역량을 갖추어야 함

2. 독일 KfW 개발은행,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 ☐ 독일 KfW 개발은행은 지난 4월 21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사업수행기관(implementing institutions)으로 선정
- ☐ 양자개발은행이 다자기금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정식 등록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유럽투자은행(EIB), 프랑스 AFD, 독일 GIZ가 금년 하반기 등록 신청을 준비 중
- ☐ KfW 개발은행은 독일정부를 대신하여 GCF 구상에 참여해 왔으며, 금년 가을까지 GCF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12월에 개최될 COP 21 이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임
- ☐ 또한 혁신적인 재원조달 기법을 도입하여 GCF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지원할 계획임

III. OECD DAC 7월 일정

	<p>제 3차 개발재원총회 계기 OECD 부대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ddis Tax Initiative 출범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역량 강화를 통한 재원 동원 지원에 대한 논의 등 o SDIP(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 Partnership) 출범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재원이 지속가능개발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민-관 공동 파트너십 - 주요 개발재원기관의 혼합금융 운영 관련 발표 등
---	--

작성자 : 구자건 심사역(프놈펜사무소개설준비위)